

제8강 자녀에 대한 큰 그림과 떠나보내기

[요삼 1:3-4]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 하노라(요삼 1:4)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어머니로서 당신은 당신의 자녀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까?
이 질문은 '지금'을 묻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를 묻는 질문입니다. 훗날 우리 아이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지 정리된다면 그것을 위해 지금을 살아가면 됩니다.

1. 나를 돌아보기

(딤후 4:7-8)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고전 9:26) 그러므로 내가 달음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같이 아니하여

(빌 3:14) 꽃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 완수를 달음질(달리기)로 비유하였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경쟁하며 상 얻는 자 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러나 향방 없이 하지 아니하고 목표를 향해서 쫓아간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행하였습니다.

지나간 10년, 3,653일, 그리고 87,658시간, 그 시간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나요? 어떤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로서, 어머니로서, 딸로서…….

혹시 분주한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 하였습니까?

10년간 나는 누구였나요? 그리고 앞으로 나는 누구이어야 하나요? 당신은 누구인가요?

2. 나를 이해하기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인물들의 삶을 살펴보면 각자 분명한 사명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예수 그리스도 -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기름부음을 받은 자(구세주, 메시아)

사명 - (요 10:10)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정체성 - (요 8:16)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압이어나와

✓ 세례 요한 - (요 1:23)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정체성 - (요 3:28) 나의 말한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 사도 바울 - 사울(구하다, 희망)에서 바울(작은 자)로 개명

사명 - (행 20:24)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정체성 - (롬 1:1)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모든 서신서의 서두에 표현된 정의

√ 느헤미야 - (느 2:5)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 에스더 - (에 7:3,6)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 당함을 참아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이까

√ 다니엘 - (단 1:8)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와 같이 분명한 사명과 정체성은 삶을 낭비하지 않고 집중할 수 있도록 뚜렷한 방향을 잡아줍니다. 마치 태양에서 오는 빛은 온 세계에 일정하게 비추지만 넓게 흩어진 빛은 힘이나 영향력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빛의 초점을 맞추면 에너지를 모을 수 있습니다. 돋보기를 통해서 태양빛을 모아 잔디나 종이를 태울 수 있습니다. 레이저 광선처럼 빛이 더 강하게 한 초점으로 모아지면 강철도 뚫을 수 있습니다.

3. 앞으로의 나를 그려보기

1) 사명선언문은 인생의 좌표입니다.

사명선언문이란, 나의 존재 이유를 문서로 공식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살아가는데 있어서 매우 실용적인 문서입니다. 인생의 향로를 발견하고, 항해를 개시하고, 그것을 평가하고, 수정하고, 다시 항해를 개시하는데 나침반의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은 2천 여 년 전에 이미 사명선언문을 단 한 문장으로 기록 했습니다.

(요 10:10)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컨대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심지어 돌발적이고 도전적인 상황이 닥쳐와도 일관성을 잃지 않았습니. 성육신에 대한 이유와 목적이 확실하고 견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확실히 하고, 견고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 자신만의 사명선언문이 큰 도움과 방향이 됩니다.

2) 먼저 큰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어떤 한 부분이 전체와 어울리는지를 알려면 그림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명을 정하기 전에도 전체 상황에 대한 그림을 먼저 그려야 합니다. (5, 10, 20년 후의 모습)

3) 누구에게나 꼭 맞는 사명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꼭 맞는 사명을 찾지 않는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찾아 자기 안으로, 깊은 곳으로 여행하는 일은 두려운 일입니다. 감추고 싶었던 것들이 발견될 것이고, 당황하는 자신도 발견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들도 찾아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면서 자신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야 하는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존재의 이유 알게 되면서 이제는 살아가야 할 방향과 목적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나만의 사명을 찾기 위해서는 자신을 올바르게 아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떡이다, 빛이다, 문이다,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다, 포도나 무다.” 예수님은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리는 다양하고 강력한 표현과 인상적이면서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사명서언문은 바로 그러한 것이기도 합니다.

4. 나의 사명선언문 만들기

1) 사명을 위해 살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나의 열정을 찾아내야 합니다. 열정은 곧 힘이기 때문입니다.

열정이란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에 열중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이점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갈 5: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롬 12:9-18)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고전 13:4-7)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밀줄 그은 말씀들은 어떠한 것에 대한 열정이 표현된 말씀입니다. 열정이 있으면 먼저 하고, 열정이 있으면 부지런합니다. 열정이 있으면 항상 힘쓰며, 열정이 있으면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열정이 있으면 도모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열정이 있으면 부분적으로만 대상을 삼지 않고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열정을 담은 위의 밀줄 그은 말씀들은 그 대상이 있습니다. 형제 사랑, 서로 우애 존경, 주를 섬김, 기도, 공급과 손 대접, 즐거워 하는 것, 우는 것, 선한 일, 진리, 참는 일, 믿는 일, 바라는 일, 견디는 일 등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중에는 나의 신앙생활과 관련하여 자극이 되고, 열정을 불러 일으키는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단어에 시선과 마음을 집중해 보세요! 혹은 다른 말씀 중에서 찾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무엇에 열정을 품기를 원하는지를, 열정을 품고 있는지를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정이 주님이 주신 당신의 힘입니다. 그 힘으로 사명을 위해 살 수 있게 됩니다.

2) 모든 사명에는 각각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돕기 위해 존재하는가? 대상이 더 구체적일수록 당신의 힘은 그 초점이 더 정확해지고 집중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 보내졌다고 말씀하셨고, 그 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흔 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가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부분의 시간을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을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설교하셨습니다. 공생애 전부를 잃어진 어린 양들을 위해 바치셨습니다.

우리도 나의 사명 안에 '누구를 위하여'가 명확하게 되면 남은 생애 동안 나의 힘, 열정을 분명한 곳에 집중시킬 수 있게 됩니다.

3) 사명 선언문은 내 자신의 비문과 같습니다.

(행 13:36)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좇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4) 사명 선언문 작성하기

(1) 좋은 사명선언문은 다음 세 가지 요소를 필수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 ✓ 한 문장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 ✓ 12살 난 아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쉽게 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나의 사명선언문 작성을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모든 사명에는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사명 선언문에는 행동하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내가 가장 행동하고 싶어 하는 단어를 생각해봅시다.

①_____ ②_____ ③_____ ④_____ ⑤_____

예) ① 겸손하게 ② 순종하며 ③ 묵묵히 ④ 충성되어 ⑤ 사랑으로

그리고 나서 이 단어들이 실제 나에게 행동을 자극하는지를 생각해봅시다. 자극이 된다면 그 단어는 나에게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어들 중에서 그 단어를 소유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키며, 내 안에 있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을 자극하는 단어를 2~3개 정도 압축해봅시다.

①_____ ②_____ ③_____

이제 이 단어들이 앞으로 당신의 활동을 구체화시켜줄 행동언어가 될 것입니다.

(3) 모든 사명에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개인의 사명이 국가의 독립에 이바지할 수도 있고, 아이에게 부모의 사랑을 새롭게 인식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봅시다. 나는 누구를 돕기 위해 존재하는 건가요? 누구를 위해 존재하기를 바라나요?

결국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 건가요?...

①_____ ②_____

예) ① 주님 ② 교회

대상이 구체적이면 당신의 사명은 더욱 선명해질 것입니다. 사명이 선명해지면 열정의 대상과 방향도 분명해질 것입니다. 분명한 열정은 틀림없이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가 분명해졌다면 이제는 그를 위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이 때 필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내가 돕고자하는 그가 실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내야 합니다. 만일 돕기는 도왔는데 그가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었다면 나의 열정과 노력은 그에게 무익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①_____ ②_____

예) ① 영혼 전도 ② 교회의 일

그를 도와줄 것이 정해졌다면 이제는 그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방법 없는 도움의 열정은 서로를 힘들게 합니다. 마음은 있으나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①_____ ②_____ ③_____

예) ①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을 권하기 ② 주어지는 봉사를 거절하지 않기 ③ 교회 일을 찾아서 하기

(4) 도움에 대한 방법론까지 구체화되었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는 그 열정과 도움의 실천을 인생 마지막까지 실행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원리나 목적, 핵심 가치를 설정해야 합니다.

①_____ ②_____ ③_____

예) ① 장차 받을 상급을 바라보자 ② 장차 받을 칭찬을 바라보자 ③ 주님의 흔적을 내 몸에

(5) 이제 위에서 정리한 것을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 명확하고, 고무적이고, 자극적이고, 매력적입니까? 나의 양심과 신앙의 목표를 만족시킵니까? 평생의 활동을 포용할 만큼 광범위합니까? 가정생활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까?

나 ○○○의 사명은 _____위하여 _____하고, _____하여 _____을 바라보며 삶을 살고자 한다.

예) 나 ○○○의 사명은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잃어진 영혼들에게 사랑으로 전도하고, 교회의 일에 겸손과 순종으로 동참하여 장차 받을 칭찬을 바라보며 삶을 살고자 한다.

예) 나 ○○○의 사명은 하나님과 복음을 위하여 겸손하게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며 성도를 세우며 함께 충성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

5. 자녀 떠나보내기

1) 가족의 구조 조정 시기

가족에도 역사와 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마다 발달의 위기와 과제가 있습니다. 자녀가 성장할수록 부모는 어떻게 자녀를 잘 떠나보낼 것인가 하는 과제를 갖게 됩니다.

2) 자녀 떠나보내기가 힘들다면

① “속박” 가정

건강한 가족이란 가족 간의 유대감뿐 아니라 개인성도 함께 존재하는 가정입니다. 개인성이 허용되지 않은 가정을 “속박” 가정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가정에서는 개인성을 가진 사람을 배반자 또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매도해 버립니다. 그러나 개인성이 말살된 유대감은 결코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속박”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치게 집착합니다. 그리고 집착을 사랑으로 착각합니다.

또한 자녀를 강요하고 간섭하고 조종하며 구속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아니?” 하고 죄책감을 주면서 독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부모의 소유처럼 생각합니다. 자녀는 부모가 하라는 대로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속박” 가정은 사랑과 관계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 늘 남아 있습니다. 서로에게 강하게 밀착하다가 어떤 때는 서로를 지나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미움이 공존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속박” 가정에서는 자녀가 성장해도 독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없습니다.

② 배우자화 된 자녀

건강한 가정은 부부가 중심이 된 가정입니다. 부부가 일체가 되어 자녀를 양육하여 자녀 나이가 20세 정도가 되면 자기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만일 부부 사이가 좋지 않으면 그러한 독립이 어렵습니다. 자녀를 길러오는 동안에 배우자에게 충족되지 못한 위로와 소망을 자식에게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가정에서는 자녀 역시 부모를 떠나기가 어렵습니다. 부모가 “너 하나 바라보고 살았다” 하고 말하면 자녀는 더욱 떠나가기 어렵습니다. 독립하고자 하는 마음조차 불효처럼 생각되어 죄책감까지 느끼기 때문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어머니와 딸을 남겨 둔 채 다른 여자를 얻어 나가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딸은 성장해서 결혼할 나이가 되었지만 어머니를 떠나기가 어렵습니다. 떠나는 것이 불효인 것처럼 생각이 되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불행 때문에 건강한 독립과 떠남이 어려운 사례입니다.

자녀를 진정 사랑한다면 부모의 불행을 전수하지 마십시오. 자녀에게 한을 심어주지 마십시오. 그러면 부모로서 내가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용서할 사람이 있으면 용서 하십시오. 용서는 과거를 끊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명령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행복의 선물을 전달하십시오. 자녀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축복의 말을 전달하십시오.

“우리는 불행했지만 너는 행복할거야 하나님 안에 있으면 불행은 끝이란다”라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떠나보내기”를 힘들게 하는 생각들

신화란 어떤 사회나 가족이 오랫동안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고수하고 있는 근거 없는 통념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거짓말과도 같습니다. 이런 신화 탓에 부모는 자녀를 떠나보내기 어렵고 자녀는 부모에게 독립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① “떠나보냄은 자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다”

“떠나보냄” 과 “독립”이라는 말은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떠남”이 이루어져야 부모 자녀관계는 더욱 상호적이며 인격적이며 성숙한 관계로 승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②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이다”

물론 부모들은 겉으로는 “나는 자녀를 나의 소유로 생각한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자녀는 부모가 원하는 대로, 부모의 방식대로, 부모의 틀에 어느 정도 맞추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려 하면 섭섭해 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일시적으로 자녀 양육을 맡은 청지기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③ “자녀는 영원히 우리 곁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자녀는 결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막연한 생각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유달리 야곱을 편애하던 어머니 리브가는 아들이 그렇게 자기 곁을 훌쩍 떠나가 버릴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창 25:58) 또한 부득이 엄마 곁을 떠나게 된 야곱은 그제야 홀로 서기를 통해 하나님을 일대일로 만나기 시작합니다.

④ “자녀는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삶을 살아 줄 것이다”

부모는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립니다. “의사가 되면 어떨까?”, “법관이 되면 어떨까?” 아니면 “목사가 되면 어떨까?” 하는 꿈을 가집니다. 그러다 자녀가 전혀 생각지 않았던 길을 걸어갈 때 부모는 몹시 실망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마음껏 축복하며 떠나보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전히 미진한 기대 때문에 자녀를 떠나보내는 과업을 유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꿈을 자녀에게 덮어 씌우지 마십시오.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대하십시오. 세상적인 성공과 허영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떠나보냄이 시작됩니다.

⑤ “자녀가 나를 행복하게 해 줄 것이다”

부모로서 스스로 행복하지 못한 삶을 영위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더욱 간절히 “자식이 나의 불행을 보상해 줄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기대감은 자녀의 떠남과 발전을 방해합니다. 자녀에게 행복의 근원을 두는 것은 일종의 우상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부모는 자녀를 마음껏 떠나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⑥ “자녀가 자신을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성숙해지면 그 때 떠나보낼 것이다”

부모가 손을 놓아야 자녀가 성숙해지고 책임감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미숙하기 짝이 없는 제자들의 곁을 과감하게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야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부모의 눈에는 아직 미성숙해 보여도 자녀를 과감하게 떠나보내십시오. 자녀가 빨리 성숙해지기를 원한다면 오히려 일찍 떠나보내십시오.

⑦ “자녀는 내가 없으면 안 된다”

그렇게 헌신적인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야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제야 부모를 떠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자녀 양육역할은 임시적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손을 놓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강하신 하나님의 손에 자녀를 위탁하십시오. 자녀를 떠나보내십시오.

4) “떠나보내기”를 위해 가져야 할 마음가짐들

그렇다면 진정한 떠나보냄을 위해 어떠한 마음가짐을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요?

① 떠나보냄은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떠나보냄은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떠나보낸다는 것은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결국 자녀가 우리 품을 떠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랑을 부어 주는 것이며 엄격한 훈계를 시행하는 것이며 충분한 양육을 주는 것입니다.

② 떠나보냄은 스스로 배우며 성숙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손을 놓아야 스스로 배웁니다. 넘어질 것 같지만 놓아 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지는 것도 배움의 과정입니다. 스스로 배우며 성숙할 기회를 주는 것이 떠나 보냄입니다.

③ 지시와 잔소리와 간섭을 의도적으로 점점 느슨히 해야 합니다.

떠나보냄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을 위해 지금부터 잔소리를 줄여 나가십시오. 자녀에게 자립심과 독립심을 키워주기 위해 지금부터 이래라 저래라 하는 지시를 멈추어 보십시오.

④ 감사 표현을 점점 많이 사용하세요.

성장하는 자녀에게 잔소리 하고 요구하기 보다는 “고맙다”, “그래 난 너를 믿는다”, “참 좋구나” 하는 표현을 점점 많이 해보십시오. 관계 전환이 일어날 것입니다.

⑤ 부모 자신의 성장을 추구하세요.

자녀의 독립 시기를 가장 잘 통과하는 비결은 부모 자신이 근본적인 변화를 갖는 것입니다. 자식이 떠난 다음에도 삶은 있습니다. 빈 동지를 부부의 우애적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훨씬 한가해진 시간을 배움의 시간으로 활용하십시오. 그래서 새로운 변화와 성장에 도전하십시오. 자녀만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역시 홀로서기를 하는 것입니다.

⑥ 자녀에게 상처 준 일이 생각나거든 용서를 구하세요.

아빠가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너 혹시 기억나니?”, 기억 나냐구요?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는걸요! 하는 아들의 말에 아빠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용기를 내어 “아빠가 잘못했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란다. 미안하다. 아빠를 용서해주렴” 하고 말했다. 그랬더니 아들의 얼굴에 어느새 눈물이 맺히며 오히려 아빠를 향한 감사와 존경의 표정이 깃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를 진정 떠나보내려면 상처 준 사건에 대해서 화해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용서구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용기 있는 일입니다. 용서를 구하면 오히려 부모로서의 진정한 권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⑦ 부모가 겪을 수 있는 후회감과 상실감 등을 피하지 마세요.

자녀가 우리 품을 떠나는 동안 우리 부모는 복합적인 감정을 경험합니다. 텅 빈 방을 들여다보면서 더 이상 우리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은 허전함과 상실입니다. 어떤 때는 분노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깊은 후회감과 죄책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좀 더 잘 키워더라면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으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감정들을 자녀에게 쏟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태도는 자녀에게 부담감과 죄책감을 전가하면서 다시 조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러한 감정들을 “그런거구나”하고 수용하십시오.

이 세상에 완전한 부모는 없습니다. 완전한 삶을 산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이 삶의 현실인 것입니다.

⑧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 하십시오.

지금까지 내 자녀만을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고개를 들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삶의 지경을 넓히십시오. 사실 내 자녀에게만 사랑을 쏟았던 일은 어찌 보면 이기적인 사랑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모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사랑과 봉사의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식들에게만 물질과 헌신을 쏟았는지가 드러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터는 인생의 후반부를 위해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하십시오.

자녀를 진정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들을 잘 떠나보내려면 영적 자녀들을 돌아보는 삶을 계발하십시오. 자녀들만 바라보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과 사역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십시오. 그런 부모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녀는 자신의 삶도 다시 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 곁을 떠날 때는 “나는 훌륭한 부모를 가졌다”라는 값진 유산을 가져갈 것입니다.

⑨ 아름다운 추억을 나누세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녀와 함께했던 지난날의 추억을 나누어 보십시오. 특히 아름답고 감사했고 기뻐했던 날들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추억의 앨범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후에 그것들에 대해 서로 이야기 해보세요.

⑩ 자녀가 하나님을 일대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이제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부모로서의 사명을 끝낸 것입니다. 청지기의 역할을 끝내고 자녀를 주님 손에 돌려 드리는 것이 자녀를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부모 역할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시간에 우리의 역할은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녀를 전능한 하나님 손에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자녀를 만나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자녀가 창조주 하나님만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모든 것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었던 상처도 주님 사랑 때문에 치유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자녀를 위한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한 자녀 한 자녀가 하나님을 일대일로 만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세상적인 성공과 물질적인 부유보다 자녀의 신앙을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자녀를 떠나보내는 부모의 마지막 사명인 것입니다.**

5) 성경속의 떠남 이야기를 교훈 삼아

기독교는 길로 떠남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 12:1)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천축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또 리브가의 품에 머물렀던 야곱을 장차 이스라엘로 만드시려고 형 에서를 피해 부모 곁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또 아버지 품에서 편애를 받던 요셉을 장차 애굽의 총리대신으로 만드시기 위해 떠남의 사건을 연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감격스러운 떠남의 이야기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떠남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떠남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뒤에 그들을 세상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요 20:21)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 하시면서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떠남을 당하고 있습니다. 실로 기독교는 떠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아름다운 떠남의 선교이야기가 계속되기를 기도하십시오. 떠남은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마 28:19-20)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